

34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양to the치기 34일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의 핵심적 질문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의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사물 본연의 핵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본질적 기능이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면, 책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비본질적 행위이고 이러한 비본질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물의 본질이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상 자체가 원래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는 본질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면서, 즉 책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적으로 행동을 해 보고 난 후에 책상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책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저서에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러해.’라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말했다. 책상을 보고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사후적 구성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을 통해 책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램프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방을 장식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빛을 내는 것이 램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믿으며 램프의 사용 목적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할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어기는 타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파이프를 그린 화가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닮은 형상을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림 속 형상을 파이프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 그림을 본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한 사물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속성을 결정한다.
- ③ 사물의 본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
- ④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은 명료하게 구분된다.
- ⑤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2. <보기>에 대한 ㉠과 ㉡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공(空)을 이야기해 왔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 온 ‘공’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을 치유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 ① ㉠: <보기>의 ‘자성’은 인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 <보기>의 ‘자기동일성’은 오랜 수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 <보기>의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 <보기>의 ‘공’은 경험적 행동을 통해 얻은 본질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보기>의 ‘무자성’의 경지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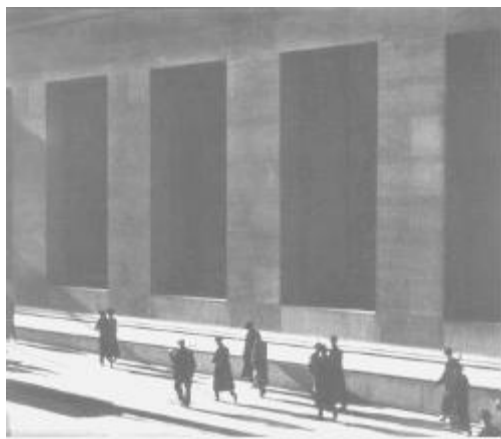
양to the치기 34일차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진은 2차원 평면 위에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회화와 비슷하지만 광학과 화학 등 기술적 특성을 지니기에 예술과 기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하였다. 처음의 사진은 회화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사진으로서 독자적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픽토리얼리즘은 사진도 회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픽토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사진의 복제성을 포기하고 회화의 속성인 수공적 방법을 끌어들이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회화적 구현의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20세기 초, 사진이 갖는 기술적 특성인 기록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스트레이트 포토'가 등장한다. '직접적인 사진' 또는 '순수 사진'으로 불리는 스트레이트 포토를 추구하는 작가는 앵글이나 셔터, 프레임 등의 사진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치중하려 했다. 즉,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려 했다. 미국의 폴 스트랜드는 그의 작품 「월 스트리트, 뉴욕」



에서 프레임의 설정만으로 자본주의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형의 직사각형 창이 있는 육중한 석조 건물과 출근하는 왜소한 사람들의 모습의 대비만을 프레임에 넣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및 변조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의 구현 등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보자면 픽토리얼리즘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작가의 주제 의식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다.

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진과 관련한 예술적 경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사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과학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 있다.
- ③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예술적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개념을 특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사진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글리츠의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뉴욕」이다. 그는 뉴욕의 옛 건물과 새로 짓는 현대적 건물을 사진에 그대로 담았다. 이 사진은 한 시대에 공존하는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면의 낡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뉴욕'을, 후면에 있는 수직적 상승감이 강조된 철골 구조는 '새로운 뉴욕'을 상징한다.

- ① 명암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여 당대 사진의 표현 기법을 살핀다.
- ② 초점을 흐리게 하는 기술에 주목하여 작품이 지니는 형식적 실험성을 살핀다.
- ③ 대상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여 작가의 표현 의도를 살핀다.
- ④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시기에 주목하여 작품이 가지는 시대사적 의미를 살핀다.
- ⑤ 프레임에 담긴 대비적 구도에 주목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살핀다.

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사진의 기록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사진의 복제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성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합성된 이미지를 사진에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회화적 속성을 중시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to the치기 34일차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①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과 단방향 매칭(one-sided matching)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 매칭에서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을 설계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제안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락자에게 제안을 한다. 이 때, 1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무조건 그 제안자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고, 2명 이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은 수락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 한편 각 수락자는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던 제안자와 새롭게 제안한 제안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제안자 집합의 구성원들이 수락자 집합의 구성원들과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며, 매칭에 참가한 구성원은 임의로 매칭을 종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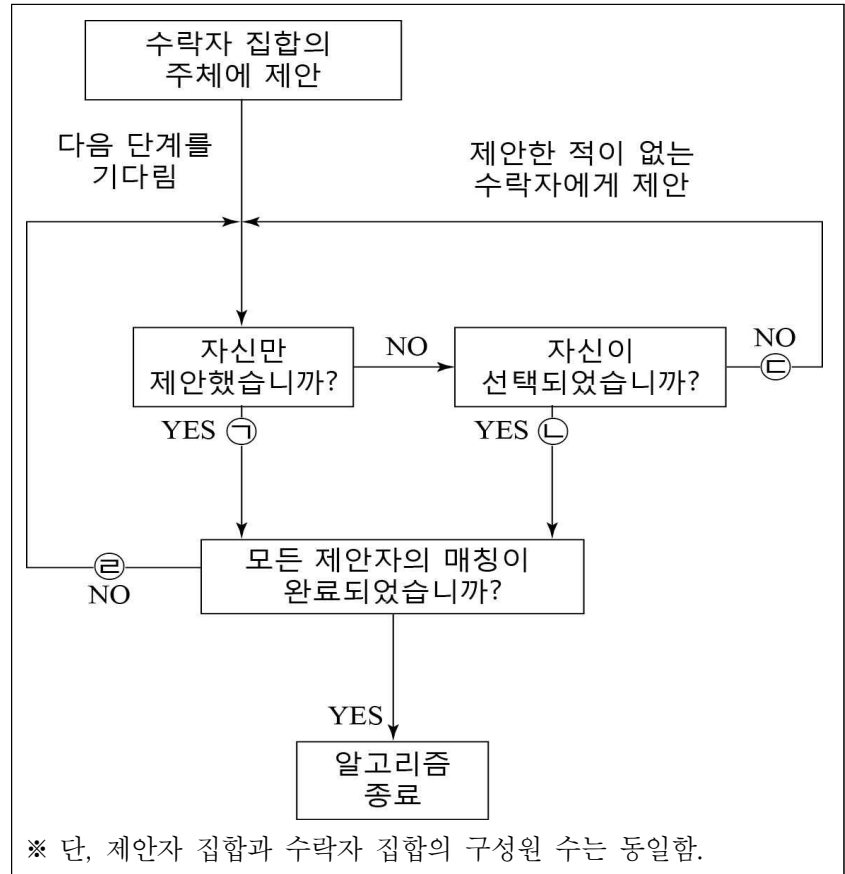
이와 달리 단방향 매칭에서는 선순위 거래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화를 배분한다. 알고리즘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는 자신이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다른 제안자의 매칭 결과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이 방법은 매칭이 이루어진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시장을 설계할 때 양방향과 단방향 매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두 매칭을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설계 이론은 장기 교환 이식 제도, 주택 청약 제도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제도의 장점과 한계
- ②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
- ③ 시대에 따른 시장 설계의 특징
- ④ 시장의 성격에 따른 재화 배분 과정
- ⑤ 시장의 범위에 따른 알고리즘의 종류

7. 다음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정적 매칭을 이루게 된다.
- ② 모든 제안자들이 ㉠의 과정을 통과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에서 수락자는 제안자 중 가장 선호하는 사람과 매칭을 이룬다.
- ④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선호하는 제안자를 골라 추가 제안을 받는다.
- ⑤ 제안자와 수락자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과 ㉡의 과정이 반복된다.

8. ①을 적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녀를 짝지어 줌.
- ② 인력 정보 시장: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자를 이어 줌.
- ③ 창업 정보 회사: 식당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연결해 줌.
- ④ 사회 복지 기관: 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줌.
- ⑤ 중고품 판매 사이트: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와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연결해 줌.

양to the치기 34일차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군령장을 쓰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아니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김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허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 는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A]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血)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랴 함이 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하여 군사들을 돌아보며,

“야들야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보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삼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 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멱살을 꼭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양to the치기 34일차

어디로 피할소냐.”
 냅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세요.”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
 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
 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푹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
 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
 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
 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
 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
 려 주시제 죽일소냐.”

[B]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
 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
 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믿사오
 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
 이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
 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늙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나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옆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
 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옛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
 공 ①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
 대를 해산시켜 항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9.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망의 뒷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군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다.

11.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조조>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④
 <주창>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 ⑤

12. ①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양to the치기 34일차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경(明鏡)에 띄 써거던 갑주고 닷글 줄
아희 어른 업시 다 밋쳐 알건마는
갑 업시 닷글 명덕(明德)을 닷글 줄을 모르는다.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브라보니
크나큰 혼길이 넘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술 배혀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너야
길 닐흔 행인(行人)을 다 건느려 흐엿더니
사공도 무상(無狀)하야* 모강두(暮江頭)*에 브렛는다.

<제3수>

- 박인로, 「자경(自警)」 -

-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 무어: 만들어.
- * 무상하야: 변변치 못하여.
- * 모강두: 저무는 강가.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正道(正道)를 의미함.
-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닦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해설

- ①③①⑤③
- ②④④②⑤
- ③①③③

□ 출전: 강신주, <본질이란 무엇인가>

1.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물의 본질은 사후적 구성 논리에 의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 [출제의도] 다른 자료를 통해 내용 추론하기
불교에서의 '자성'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무자성'을 강조한다. 이는 본질이 없다는 것으로, 본질에 대한 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이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이 반복됨으로써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출전: 박평중, <사진의 경쟁-19세기->

3. [출제의도] 내용 전개 파악하기
이 글은 사진의 경향을 19세기 후반의 픽토리얼리즘, 20세기 초의 스트레이트 포토,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의 특징과 그에 담긴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사진은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 '스트레이트 포토'의 한 작품이다. 프레임에 담긴 옛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의 픽토리얼리즘은 회화적 구현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달리 하고, ㉡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은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조한다. 그래서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출전: 홍성훈,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6.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시장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은 수락자가 한 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경우이므로 수락자는 반드시 그 제안자와 잠정적 매칭이 이루어지며, 만약 모든 제안자가 각각 한 명에게만 제안했다면 모든 제안자와 수락자가 매칭을 이루게 되므로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또한 ㉡은 여러 명의 제안자 중 수락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택한 경우이며, ㉢과 ㉣은 모든 제안자가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반복된다.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수락자가 제안을 받은 후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제안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①, ②, ③, ⑤는 제안자와 수락자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④는 정보만 제공할 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출전: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9.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관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 오겠다는 군령장을 쓴다. 그러나 과거 자신을 살려준 '조조'의 은혜를 생각하여, '조조'를 잡으려 시도 풀어준다. 목숨을 살려 준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관공'은 군율을 어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A]에는 관공의 위협에 비굴하게 비는 '조조'의 모습이 회화화되어 있다. [B]에는 말 아래 떨어진 '조조'를 보고 '장졸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A], [B] 모두 관습적 표현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특성 파악하기
'조조'는 살길을 도모하려고 상대 적장에게 비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비는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2. [출제의도]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유방백세'는 꽃다운 이름은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④에 적합하다. ②는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한다. ③은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의미한다. ④는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는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출전: 박인로, <자경(自警)>

1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제1수>에서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명경'을 닦으면서도, '명덕'은 닦지 않는 모습을 대비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ㄱ). <제2수>에서는 '성의관', '팔덕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을 드러낸다(ㄴ).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1수>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명덕'을 닦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제3수>에서 화자는 '행인'들을 구제하려는 포부가 있었으나 부족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그 포부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 '행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